'새로운 이름을 찾습니다'

31일까지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명칭 공모

정읍시가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의 명칭을 전 국민 대상 공모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담은 '백제가요 정읍사'를 콘셉트(concept)로 조성 중인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가칭)의 새로운 이름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마감은 이달 31일이다.

명칭은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의 의미와 목적을 쉽게 전달함은 물론 정읍사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담고 있으며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독창적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정읍시청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에서 '공모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방문(정읍시청 4층 토탈관광과) 또는 우편(정읍시 충정로 234 토탈관광과), 이메일(gumbani@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응모작을 대상으로 관계부서(토탈관광과)에서 1차 예비심사 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최종 심사를 거쳐 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결과 발표는 개별통보 또는 9월 중 정읍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할 예정으로 최우수(1명) 70만원, 우수(1명) 50만원의 시상금을 비롯 장려(1명) 에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90%이다. 기반공사는 연내 마무될 전망으로, 내년 3월경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내장산 국립공원과 내장산리조트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 일환이다. 정읍사 설화와 정해마을에 위치한 새암우물, 그리고 부부나무 등의 관련 자원을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

신정동 정해마을을 중심으로 한 21만5808㎡(약 6만5천평)에 총사업비 314억원을 투입, 조성 중이다. 가요 박물관과 한식 체험관, 저잣거리, 정읍사 여인집 등 건축물과 야외정원, 자연생태연못, 누각 등이 들어선다.

특히 가요 박물관은 전국 최초 가요박물관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건축 연면적 약1,517여㎡에 전시실 3개소와 홀 및 휴게실 등이 갖춰진다. 이곳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궁중음악인 수제천의 우수성과 가치를 소개하고 설화 속 주인공인 망부석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백제시대 평민의 삶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각 나라별, 시대별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공간도 조성된다.

유진섭 시장은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은 정읍사(井邑詞)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 가요 발상지, '정읍'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며 "특히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되는 가요박물관은 문화관광도시 정읍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고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詩)가 있는 산책로 조성

회문산자연휴양림, 김용택 시인 시비 설치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회문산자연휴양림 해원의 숲에 김용택 시인의 시비를 설치하고 지난 17일 제막식을 가졌다.

김용택 시인은 1982년 21인 신작시집(창작과 비평)에 연작시 '섬진강' 등을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했다. 시집 '섬진강'과 '맑은 날', '꽃산 가는 길' 등을 펴 냈으며 김수영문학상과 소월시문학상, 윤동주문학상 등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그는 전북작가 회장, 전북환경운동 공동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날 제막식에는 김용택 시인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서부지역팀 김응준 과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시비가 설치된 해원의 숲은 편백나무 식재지로써 잘 정비된 산책로를 따라 김용택 시인의 대표 작품을 시비로 설치해 휴양림 이용객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줄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회문산자연휴양림은 김용택 시인과 상호 협력해 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시문학 강좌 시문학의 밤 등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실행할 예정이다.

김용택 시인과 회문산자연휴양림이 공동 실행하는 산림문화행사시 입장료는 면제된다.

회문산자연휴양림 두승희 팀장은 "다가오는 가을, 아름다운 단풍과 더불어 시 감상을 통해 잠들어 있던 감성을 깨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휴양림 이용객들이 숲속 휴양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문화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문화도시 사업 성공 추진 위해 시민과 함께

남원시, 내달 14일 7번째 원탁회의 개최

남원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다.

남원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9월 14일 오후 7시 남원시청강당에서 7번째 남원시민 원탁회의 가질 예정이며, 회의 주제를 남원시 문화도시를 부탁해! 로 하고 참가 시민을 모집한다.

남원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신청은 퍼실리테이터(테이블 진행자)와 서기 참여는 8월 21일까지, 소주제 발표 시민 논객 참여는 8월 31일까지, 원탁회의 당일 참여는 9월 13일까지 남원시 시민소통실(620-6802)에 전화하면 된다.

남원시민 원탁회의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2015년 하반기부터 연2회씩 추진하고 있으며, 원탁회의에서 나온 의견은 실과소와 전문가의 자문 및 공론을 거쳐 시를 위한 유용한 정책으로 환원되고 있다.

특히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나올 문화도시 컨텐츠들은 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할 남원시문화도시사업에도 일부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특성화 전략으로 제2의 문예부흥을 이뤄 작지만 강한 문화도시 남원을 만들어 갈 계획으로 원탁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정읍사문화제 부도상 후보자 추천 접수

매년 가을이면 정읍에서는 매년 백제시대 한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한 문화제가 열린다. 10월 중순께 열리는 정읍사문화제가 그것으로, 올해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이와 관련해 (사)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이사장 조택수)가 제29회 정읍사문화제 부도상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다.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31일(18:00 마감)까지다.

추천 대상은 5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부도(婦道, 부모공경, 가정화목, 다복, 헌신)와 부덕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즉, 부모를 공경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등 사회적·교육적 귀감이 되는 여성이다.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읍·면·동장, 기관·단체장, 봉사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기간 내 (사)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제전위는 "신청 접수를 받아 서류 심사와 심사위원의 현지실사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해 부도상의 품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상은 10월 19일 열리는 제29회 정읍사문화제 개막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홈페이지(www.jchf.or.kr)를 참고하거나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사무실(☎532-8880)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